

소할바령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이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적단계에로 확신성있게 들어설수 있게 한 역사적인 회의

홍종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와 하바롭스크회의는 1940년대 전반기 항일무장투쟁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해주고 조선혁명가들이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면서 다가올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게 해준 중요한 회합이였습니다.》(김일성동지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8권 123페이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극도로 긴장되어있었다.

동서방의 파쇼국가들은 전세계를 정복하고 전인류를 노예화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의 불길을 날로 확대하고있었다.

특히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아시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결속하지도 못한채 동남아시아에로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미쳐날뛰면서 《후방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밑에 수많은 《정예》부대들과 현대적군사기술장비까지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공세와 우리 인민에 대한 파쇼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9(1940)년 8월 역사적인 소할바령회의를 소집하시고 안팎의 복잡한 정세와 그 발전추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내리시였으며 일제멸망의 불가피성과 항일혁명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략과업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

하신 소할바령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이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적단계에로 확신성있게 들어설수 있게 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소할바령회의는 무엇보다먼저 일제멸망의 불가피성을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혁명가들, 우리 인민들이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일제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혁명가들, 광범한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역사적단계에서 제기되는 정치군사적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였다.

당시 동서방파쇼국가들이 전세계에로의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고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강화되자 일부 사람들은 신심을 잃고 동요하고있었으며 혁명의 타락분자들은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 원쑤들의 편으로 넘어가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혁명가들, 광범한 인민들에게 일제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해주어야 그들이 필승의 신념을 안고 새로운 전략적단계의 과업수행에 확신성있게 떨쳐나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할바령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단계에서 조국해방이 성취될수 있다는것을 확신성있게 천명하시고 일제멸망의 불가피성을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일본침략군

이 망해가는 군대라는것을 사실자료를 가지고 론증하시였다.

당시 관동군의 정예라고 하는 일본공군 부대들에서는 자주 폭동이 일어나고있었으며 중일전쟁마당에서는 도주자와 의거자들이 많이 생겨나 그것을 단속하는데 큰 고품을 들이고있었다. 게다가 중일전선에서는 막대한 병력손실을 보고있었다.

일본군은 9.18사변부터 7.7사변전까지 6년간 만주지방에서 20여만의 병력손실을 보았지만 중일전선에서는 한해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보고있었다.

일본이 보유하고있는 군사전략물자에비해서도 한계점을 이루고있었다.

1937년 간삼봉전투를 할 때만 하여도 일본이 1920년대에 생산한 탄알을 사용하였는데 소할바령회의직전에는 1939년이후에 생산한 탄알을 사용하였다는것을 군사전략물자에비도 거의 없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일본정계와 군부의 침예한 내부모순에 대하여 해설론증하시였다.

당시 일본의 정계는 내부모순으로 매일과 같이 입씨름으로 허송세월하고있었으며 일본내각은 사흘이 멀다하게 교체되고있었다.

일본군부 역시 군장성들과 장교들이 여러파로 갈라져있었으며 의견상대립으로 작전에서도 통일성보장은 말할것도 없고 호상간의 협동도 보장할수 없었다.

게다가 일본은 로자간의 모순, 군민간의 모순, 종주국과 식민지간의 모순이 폭발직전에 이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본이 이러한 처지에서 또다시 동남아시아로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곧 일본이 제 무덤을 파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라는것을 확신성있게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일본제국주의

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과학적인 론증은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의 혁명가들, 광범한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새로운 전략적단계에서 제기되는 역사적인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게 하였다.

소할바령회의는 다음으로 새로운 역사적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투쟁방침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과 광범한 인민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전략적과업수행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조성된 정세와 전략적과업의 요구에 맞게 투쟁방침을 옳게 정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혁명정세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새로운 단계에서의 전략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우고 우리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새로운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과업과 새로운 투쟁방침은 당시의 정세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면서도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탁월한 군사전략적과업이고 방침이였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조선인민혁명

군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은 적아쌍방의 정치 군사적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동원되는 최후결전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결전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그 직접적담당자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매개 대원들이 몇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그래야 그들모두가 유능한 지휘관이 되어 군사작전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고 전체 인민을 반일항전에 불려일으킬 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소할바령회의에서는 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는 문제를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이 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방침으로 제기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정세로 보아도 지극히 정당한 투쟁방침이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쏘중 량방면에서의 동시작전도 불가능하며 아시아제패의 야망도 실현할 수 없다는 타산밑에 혁명군을 《완전소멸》해보려고 전례없는 대규모의 《토벌》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군이 지난 시기처럼 대부대작전을 계속한다면 적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멸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단위로 움직이면 적의 조밀한 경계망과 포위망도 뚫고나갈 수 있었으며 도처에서 과감하고 령활한 소모전을 벌려 적의 력량을 분산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또한 주동적으로 시간을 얻어 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전사들이 자기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며 풍부한 군사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군정학습과 적극적인 소부대군사정치활동을 통하여 몇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나갈 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

부대작전으로 이행하는 것은 주동적인 공세로 적들의 기도를 짓부셔버리고 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여 혁명적대사변의 승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일제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을 성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대사변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자면 혁명군대의 작전에 배합한 전민항쟁을 벌려야 하였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성원이 없이는 혁명군대의 군사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도 없고 일제의 백만대군과의 결전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다.

당시 일제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출을 막으며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반동적사상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파쑈적인 어용단체인 조선황도학회, 조선문인협회 등을 조작하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미화선전하면서 조선민족의 《렬등성》과 일본인의 《우월성》을 설교하는 선전감빠니아를 대대적으로 벌리었으며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억지로 일본말로 외우게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그들을 조국해방의 대사변으로 불려일으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활동이 중지되고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한 조건에서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혁명승리에 대한 신

심을 잃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미 쟁취한 혁명군중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하여 전민항쟁을 성과적으로 벌리자면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하여야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하는 것은 인민혁명군의 역량보존에서뿐 아니라 전민항쟁을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들과 전사들로 수많은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를 편성하면 적들의 악랄한 봉쇄망도 뚫고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침투할 수 있었으며 도처에서 기동적이고 령활한 군사활동과 적극적인 정치사업으로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높여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광범한 반일대중을 조직화하고 혁명적으로 각성시켜 장차 도래할 혁명의 결정적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결전에 호응하여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 조직된 인민대중을 한사람같이 동원시킬 수 있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과업과 그 실현방도, 당면투쟁과업을 밝혀주심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가들은 명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었다.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은 새로운 전략적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

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모든 분야에 걸쳐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전략적로선들을 제시한 주체20(1931)년 12월의 명월구회의, 주체25(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 남호두회의와 더불어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명철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한 력사적인 회의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시의 것처럼 엄혹한 정세에서 혁명적 대사변에 대처한 로선전환의 위대한 방침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의 허장성세에서 그 멸망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어려울수록 주도권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비범한 령도력이 있었기때문이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할바령회의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만일 그때 우리가 대세의 흐름을 제때에 보지 못하고 목전의 성과에만 급급하여 대부대활동을 계속했다라면 역량도 보존하지 못하고 자기존재를 끝마쳤을 것이며 력사에 순국한 렬사들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가들, 우리 인민들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확신성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인 회의였다.